

# 재무관리

## 1

- 영업현금흐름(OCF)
  - $\Delta \text{EBIT} = \text{영업이익변동률}$
  - $\Delta D = \text{감가상각비의 변동분}$
  - $\text{영업현금흐름(OCF)} = \Delta \text{EBIT}(1 - t) + \Delta D$
- 고정자산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
  - $\text{수익} = \text{판매가격} + (\text{장부가치} - \text{판매가격}) \times \text{법인세율}$
- 투자안의 초기투자금액 = 기계구입원가
- 감가상각에 따른 전세효과(tax shield)
  - 감가상각비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
  - $t = \text{법인세율}$
  - $t \cdot \Delta D$
-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준
  - 회수기간법(payback period)
    - 단일 투자안: 회수기간 < 목표회수기간 → 채택
    - 여러 투자안: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채택
  - 회계적이익률법(accounting rate of return; ARR)
    - $\text{연평균 순투자액} = \frac{n_0 + n_1 + n_2 + n_3 + n_4}{5} = x \text{원}$
    - $\text{ARR} = \frac{\text{장부상 연평균 순이익}}{\text{연평균 순투자액}} = 1 \text{원의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장부상 이익}$
    - 단일 투자안:  $\text{ARR} > \text{목표이익률} \rightarrow \text{채택}$
    - 여러 투자안: ARR이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
  - 순현재가치법(net present value; NPV)
    - $\text{CI}_{\{t\}} = t \text{기의 현금유입}$
    - $\text{CO}_{\{t\}} = t \text{기의 현금유출}$
    - $r = \text{할인율}$
    - $$\text{NPV} = \sum_{t=0}^T \frac{\text{CI}_{\{t\}}}{(1+r)^t} - \sum_{t=0}^T \frac{\text{CO}_{\{t\}}}{(1+r)^t}$$
    - 단일 투자안:  $\text{NPV} > 0 \rightarrow \text{채택}$
    - 여러 투자안: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
  - 내부수익률법(internal rate of return; IRR)
    - $\text{CI}_{\{t\}} = t \text{기의 현금유입}$
    - $\text{CO}_{\{t\}} = t \text{기의 현금유출}$
    - $\text{IRR} = \text{내부수익률}$
    - $$\sum_{t=0}^T \frac{\text{CI}_{\{t\}}}{(1+\text{IRR})^t} - \sum_{t=0}^T \frac{\text{CO}_{\{t\}}}{(1+\text{IRR})^t} = \text{NPV} = 0$$
    - 단일 투자안:  $\text{IRR} > r(\text{자본의 기회비용}) \rightarrow \text{채택}$
    - 여러 투자안: IRR이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
  - 수익성지수법(profitability index; PI)
    - $$\text{PI} = \frac{\sum_{t=0}^T \frac{\text{CI}_{\{t\}}}{(1+r)^t}}{\sum_{t=0}^T \frac{\text{CO}_{\{t\}}}{(1+r)^t}}$$
    - 단일 투자안:  $\text{PI} > 1 \rightarrow \text{채택}$
    - 여러 투자안: PI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

- 현금흐름 분석
- NPV법과 IRR법

## 2

- CAPM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
  - $r_f$  = 무위험자산
  - $r_m$  = 위험자산
  - $\beta_i$  = 시장베타
  - $E(r_i)$  = 기대수익률
  - 증권시장선  $E(r_i) = r_f + [E(r_M) - r_f] \beta_i$
  - Gordon 모형  $r_E = \frac{D_1}{P_0} + g$
- 법인세 공제후 타인자본비용
  - 차입이자율 또는 채권의 만기수익률:  $r_D$
  - 세후 타인자본비용:  $r_D(1-t)$
- 가중평균자본비용(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; WACC)
  - $E$  = 자기자본
  - $D$  = 타인자본
  - $r_E$  = 자기자본 자본비용(%)
  - $r_D$  = 타인자본 자본비용(%)
  - $t$  = 법인세율
  - $WACC = \frac{E}{D+E} \times r_E + \frac{D}{D+E} \times r_D(1-t)$

## 3

- 자본구조 변경전 자기자본기대수익률(자기자본비용)
- MM의 제2명제를 이용, 자본구조변경 후 자기자본기대수익률(자기자본비용)
- 기업 가치
- 부채 증가에 따른 현상

## 4

- 배당수익률(dividend yield) = 1주당 배당금을 주식가격으로 나눈 값
  - $\text{배당수익률} = \frac{\text{주당 배당금}}{\text{주가}} \times 100\%$
- 배당성향(dividend payout ratio) = 당해 연도의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중
  - $\text{배당성향} = \frac{\text{배당금}}{\text{당기순이익}} \times 100\%$
- MM의 배당무관론이론, 배당을 지급한 직후의 주가
  - $\text{주당 거래금액} - \text{주당 배당금} = \text{배당 지급후 주가}$
- 배당수익률, 배당성향에 따른 PER(Price-earning ratio; 주가수익률)
  - $\frac{\text{배당성향}}{\text{배당수익률}} = \frac{\text{주가}}{\text{순이익}} = \text{PER}$  퍼주리

## 5

- 투자에 대한 목표회수기간에 따라, 회수기간법으로 평가한 결과

## 6

- 강세통화
  -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통화를 강세통화(strong currency)
  - 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통화를 약세통화(weak currency)

From:

<http://theta5912.net/> - reth

Permanent link:

[http://theta5912.net/doku.php?id=public:business:financial\\_management](http://theta5912.net/doku.php?id=public:business:financial_management)

Last update: **2021/02/28 05:24**

